

“읽고, 놀고, 만들고, 세 배로 즐겨봐”

겨울방학을 맞아 광주중앙도서관(관장 이광순)이 2019년 1월15일(화)부터 19일(금)까지 4일간 오전 9시30분부터 3시간씩 총 12시간에 걸쳐 초등학교 3~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읽고 놀고 만들고 세 배로 즐겨봐’를 주제로 독서습관 끝내기 어린이들에게 독서지도 전문교사가 답임을 맡아학년별 발달 수준에 맞게 권장 도서를 선정해 같이 읽고 보고 놀며 책 속의 장면을 경험하

광주중앙도서관, 2019년 겨울독서교실 내년 1월 15일부터 4일간 3시간씩 운영

는 활동 중심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의 무한한 상상과 독서의 힘을 길러볼 수 있도록 감정 공유하기, 한 문장 깊이 읽기, 리딩 푸드 등 체험형 독서활동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중앙도서관 이광순 관장은 “독서교실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매 회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며 “읽을거리, 볼거리, 만들거리 풍성한 책나라로 떠나는 독서교실에 참

여해 책 읽는 즐거움을 맛있게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겨울독서교실은 독서기록장, 수업자료 등을 제공하는 무료강좌다. 신청은 12월 13일(목)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와 어린이실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광주중앙도서관 어린이실(☎ 607-1342)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호 기자



보성다향고 교직원, 飛上에 힘을 모으다

보성 다향고등학교(교장 김선경)는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이하 매직학교)’의 일환으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학기 기말고사 기간을 활용하여 ‘2019학년도 비상(飛上)’을 위한 교직원 동계 워크숍을 교내와 여수일원에서 실시하였다.

다향고등학교는 매직사업을 통하여 ‘작은 학교 차차(茶車) 행복 다향고’ 미션과 ‘꿈을 갖고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비전으로 정하고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2019학년도 비상(飛上)’을 위한 교직원 동계 워크숍은 매직프로그램 등 2018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반성을 토대로 2019학년도 교육계획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은 12월 11일 강(하)과편에 따른 효율적인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방안: 전남교육청 김경선 장학관 교과와 연계한 직업기초능력 향상 방안: 전남교육청 유태숙 장학사와 함께, 14일의 색션에서는 교육과정 반성회(교육과정 및 매직사업 평가), 색션에서는 선진학교 탐방(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조영만 교장 강의 및 안내), 색션에서는 부서별 교육계획 초안수립, 15일의 색션에서는 교육계획 수립 방향 공유(전체) 등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2019학년도 비상(飛上)을 위한 교직원들의 힘을 모으는데 의미를 두었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주 장덕고, 교실서 법률전문가 만나다 노무사와 함께하는 2차 법과정치 협력수업



광주 장덕고등학교(학교장 이성철)가 학생들이 교과서로 배운 내용에 대해 해당 법률전문가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배울 수 있는 협력수업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장덕고는 김민철 노무사를

초빙해 2개 학급 교실에서 ‘법과정치’ 수업시간을 통해 ‘근로권익 침해 시 권리 구제 방법과 절차’ 등을 배우는 협력수업을 진행했다.

김 노무사의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관련 수업 내용의 실제 사례 및 구제방법과

직업으로서 노무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 내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함께 했다.

김민철 노무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교육청 현장실습 노무법률지원단 자문 노무사로 활동하면서 특성하고 학생들의 산업재해 보상, 체불임금 해결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권익 보호에 앞장선 바 있다.

법재는 학생은 “평소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수업시간에 노무사에게 물어봐서 도움을 받았다”며 “앞으로 아르바이트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 과목을 담당하는 한정일 교사는 “두 차례에 걸친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는 협력수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좋았다”고 밝히며 “학생들이 법률적 소양을 넓히고, 미래의 직업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됐다”고 덧붙였다.

임향백 기자

청암대 가족회사네트워크 워크숍 실시



청암대학교(총장 서형원)는 최근 건강복지관 3층 세미나실에서 60여개 가족회사 관계자 교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력취업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회사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가족회사 네트워크 워크숍에서는 대학의 가족회사로서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취업지원과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한 11개 가족회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또한 재학생 18명에게는 전남인재육성 재단에서 수여하는 장학증서가 전달되었으며, 재학생 2명에게는 우수인재상을 수여하였다.

서형원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대학과 가족회사의 지속

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 발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향후에도 상호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협력관계 유지해 지역사회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워크숍에서는 ‘4차산업과 기업지원사업’이라는 주제로 전남테크노파크 이정관 단장의 특강과, ‘2019 전남 청년일자리 시책 소개’를 통한 현재 전남의 청년일자리 현황 및 상태와 주요 시책들에 대하여 전라남도 일자리정책본부 권용선 사무관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또한 현장실습에 참여했던 학생 5명의 우수사례발표를 통해, 가족회사가 원하는 인재상 및 가족회사에 대한 정보와 학생들이 원하는 가족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교수 및 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교육지원청 “학교가 재밌어졌어요”

샘품지원단 멘토링 활동 종료식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재)은 지난 17일 대회의실에서 멘토와 멘티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참 만남 벗과 함께’ 샘품지원단 멘토링 활동 종료식을 진행했다.

광양 샘품지원단은 사제 간의 1:1로 결연된 멘토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사 멘토와 학생 멘티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여 학업중단 예방 및 진로 설정, 자존감 회복, 대인관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

이번 종료식은 순천 미들팜 서인승 대표를 초청하여 샌드아트 공연과 함께 을 해 샘품지원단 활동을 돌아보고, 자신의 멘토 선생님과 멘티 학생을 향해 멘토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직접 써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집단 프로그램 시간을

통해 빛은 모두 작품들을 감상하며 샘품지원단 활동 소감을 나누기도 했다.

지원단에 참여한 중학생 박태빈 멘티는 “멘티를 하면서 학교 다니는 것이 재밌다.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주신다. 내년에도 꼭 우리 선생님과 샘품지원단 활동을 하고 싶다. 프로그램도 친구들도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원재 교육장은 “우리 멘티들을 보듬고 안이주면서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 준 멘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 멘티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과 선생님의 따뜻한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힘쓰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우리 광양 학생들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양=황경석 기자

전남도교육청-순천시 순천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업무협약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과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17일 순천시 월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이날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살고, 마을이 살아야 학교가 산다.’라는 말에 서로 공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학생 교육에 참여하여 학생들이 공동체의 가치를 체득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터전을 만들고 다짐했다.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연계·협력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가 마을·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지원하며 마을 정주 여건 개선으로 마을 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장석웅 교육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모두가 소중한 전남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하면서 “학교가 모든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터, 즐거운 배움터,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 터가 되도록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정환 기자

| ◆ 광주 지역 안내 | |
|------------------|------------------|
| 계림 010-3635-7195 | 백운 010-2943-8374 |
| 중앙 010-3365-6200 | 광산 010-5604-6533 |
| 학운 010-4166-1810 | 송하 010-8620-1925 |
| 광천 010-6612-8599 | 임동 010-2656-4543 |
| 금호 010-6636-2775 | 양산 010-2646-3205 |
| 상무 010-5359-7406 | 오치 010-7532-3313 |
| 풍암 010-6634-5084 | 북구 010-4601-2080 |
| 화정 010-8438-3819 | 동운 018-611-7751 |
| 봉선 010-9474-0212 | 용봉 010-4601-2080 |
| 진월 010-2615-8374 | 두암 010-2684-6091 |

| ◆ 시 외 안내 | |
|------------------|------------------|
| 강진 010-4606-0660 | 영암 010-5655-2415 |
| 담양 010-3629-9016 | 완도 010-9578-5900 |
| 무안 010-5234-2313 | 장성 010-5287-7711 |
| 보성 061-853-9125 | 장흥 010-6234-6226 |
| 순천 010-2300-9083 | 진도 010-3081-5203 |
| 광양 010-5604-6981 | 함평 010-3625-3160 |
| 여수 010-6655-8503 | 화순 010-2077-6464 |
| 영광 010-3611-3081 | 곡성 010-3615-1088 |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